

코로나19 위기, 함께 이겨요!

열린 소통과 협치로 상생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네 번째 이야기
울산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를 만나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하며 상생의 힘을 키웁니다”



지난 4월22일, 울산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가 출범했죠?

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노사민정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 지역경제, 사회갈등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상생협력의 뜻을 올렸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명칭이 ‘화백회의’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나요?

‘화백회의’는 중요 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신라시대 제도입니다. 울산시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어떠한 의제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전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만장일치로 뜻을 모으는 것이죠.



화백회의가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의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기금을 조성해 법인을 설립하면 정부가 연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이 기금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화백회의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상생으로 향하는 울산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노사상생기금, 지역상생기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 용 희 사무관
(울산시청 일자리노동과 노사상생담당)

대기업의 비정규직이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증진(금융, 주택, 학자금 등)을 위한 ‘노사상생기금’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노사협약을 통해 임직원이 매월 보수의 일정부분을 출연해서 조성하는 기금이죠. 하지만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해서 합의까지 많은 대화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상황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의 참여가 필요 없는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이룬 다음, 노사상생기금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상생기금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대상 및 정부 지원액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한 경우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부 지원액

출연금액의 100%
* 설립일로부터 최대 7년간 누적 30억원 한도

출연금액의 100%
*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출연금액의 100%
*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 둘 이상의 기업이 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에 해당하면 **지원 제외**

Tip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컨설팅 제공



전국 6개 권역별로 근로복지공단 **노무·세무·법무 분야 전문컨설턴트**가 무료로 현장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장

* 대·중소기업 여부, 근로자수 제한 없음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활성화사업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
勞

사
使

“화백회의가 고용, 노동 등 울산지역의 중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명쾌하게 찾아 나가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사민정이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코로나19 위기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소통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민
民

정
政

“만장일치제인 화백회의 취지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양보하면서 모두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과 기업의 가치가 상호 존중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나가는 마중물이 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 대화 기구입니다. 노사관계, 고용, 노동 등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사회서비스부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비철금속까지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의제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송 철 호

주요 연혁 '18.12.27.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운영 조례 공포

'19.12.26. 본회의 위원 구성 완료

'20.4.22. 울산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출범

연 락 처 052-229-2841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출범 선언문



우리 울산은 1962년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공포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성장·발전을 이끌어왔다.

특히, 울산은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그동안 산업경제 성장과 발전은, 지난 97년 외환 위기 등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각고의 노력과 피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등 4차산업 도래에 따른 산업과 고용의 급격한 변화로 지역의 노와 사를 비롯한 모든 산업경제노동 주체들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또한, 최근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은 물론 기업의 경영악화 및 노동시장의 고용불안 등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를 구성하여, 지역의 경제 현실에 대한 공동인식과 대응, 코로나19 국난 극복, 나아가 울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로의 차이는 인정하되 노사 상호존중 정신과 책임 있는 자세로 노와 사, 시민 모두의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의 어려운 상황 극복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경제·노동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노와 사가 상호신뢰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함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과 복지증진, 노사신뢰와 노사문화 개선, 지역사회 및 노동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상생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미래 세대가 울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 주체로 살아감이 곧 울산의 성장임을 인식하고,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협의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 했던 화백회의 정신을 이어받고 노사민정 각 주체들의 동참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4월 22일

울산광역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위원 일동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 기업 노사도 동참했습니다



무림페이퍼(주) 노사

4.13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담화문 발표

- » '20년 임금협상 무기한 연기
- » 4.30. ~ 5.6. 연차 등을 활용한 사업장 휴업 실시
-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단축 근무실시 등

(주)대한항공 노사

4.17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합의

- » 일반직 및 조종사 유급휴직 실시(4.10.부터)
- » 휴업기간 중 기본급의 70% 지급
- » 조종사 노조, 사측에 '19년 임금교섭 위임

용남공항리무진(주) 노사

4.20.



휴직 및 휴직급여 감액 노사합의

- » 5.31.까지 감차 합의
- » 최소 운영대수 승무자 제외 유급휴직 실시
- » 포상·학자금 등 복리후생금품 일시보류 합의

(주)화승R&A, (주)화승소재 노사

4.21



'20년 임금협상 1회 교섭(양보교섭) 합의

- » 해외 자동차공장 섯다운으로 수출물량 감소
⇒ 1회 교섭으로 합의(양보교섭)
- » 20년 임금 동결
- » 학자금(고교) 미지급, 장기 근속사원 포상금 축소 등

ASE코리아(주) 노사

4.10.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공동선언문 채택

- » 노사, 코로나 19 위기극복 위한 모든 조치에 적극 협력
- » 5월 중 부분휴업에 대해 협의
- * 근로조건 향상, 경영성과 달성 노력에 적극 협력 등

